

경제동맥의 불순물 제거하라... 위폐 감별 위해 CSI장비도

나는 뱅커다

이호중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장

대응센터, 국내 최고의 역량 보유 금융거래 안정성 위해 위변조 색출 은행권, 감별에 과감한 투자 필요

“자본시장에 건강한 혈액을 공급하고 화폐의 신뢰를 보증한다. 우리 부서(위변조 대응센터)의 모토다. 위조지폐 감별은 자본시장에서 화폐 액면 그대로의 값어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지폐 한 장의 신뢰를 지켜내는 것에서 크게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KEB하나은행 이호중 위변조대응센터장의 말이다.

이호중 위변조대응센터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위조지폐(이하 위폐) 감별 전문가다. 1995년 외환은행에서 위폐감별을 시작한 후 2001년부터 13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금융범죄분석담당관을 지냈다.



19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이호중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장은 위조지폐 유통은 국가와 실물경제에 거대한 파급을 끼쳐 과거 물물교환의 시대로 역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의 위조방지실 무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센터장이 맡고 있는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는 국내 최고의 위폐감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시절부터 위폐 전담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2014년에 개설된 하나은행의 위변조대응센터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는 고성능 기자재를 구비했고 과학수사에 쓰이는 CSI분석 장비도 갖춰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에 ‘불순물(위조지폐)’이 섞인다면 국가와 실물경제에 거대한 파급을 미쳐 과거 물물교환의 시대로 역행할 수도 있다”며 “실제 납미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위폐는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외화 위폐유통량은 30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위폐 적발량의 경우 미 달러화가 대략 70%를 차지하는데 미 수사당국은 지난해 약 7500여만달러 규모의 미화 위폐를 적발한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견되는 원화 위폐의 경우 연평균 1억5000만원 안팎이다. 연평균 미달러화 환산 200억달러가 거래되는 외화

위폐의 경우 연 평균 15만달러를 웃돈다.

이같이 위폐유통으로 금융거래 리스크가 국내시장에 잠식된 상황에서 은행권의 위폐 대응 능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본점으로 보내온 화폐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일평균 50만장을 검수중이며, 실시간 감정을 의뢰해 오는 건수도 일평균 30여건에 달한다.

이중 위폐로 확인돼 현장에서 범인검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 5월에는 인천지점에서 미 달러화 50장을 환전하려던 지폐가 의심스러워 원격 감정을 진행한 결과 위폐로 적발해 범인을 현장 검거했다”며 “특히 범인이 지난해 서울에서 위폐를 유통시키다 검거된 조직의 유사범으로 밝혀져 공급체인 외국인 검거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 달러화 위폐중 가장 정교한 초정밀 위조미화인 ‘슈퍼노트’의 경우 국가급의 조폐시설을 갖춘 조직에서만 만들 수 있어서 미 대사관을 통해 수사당국 인사가 당행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정보협력중이며 특히 지난해 11월 하나은행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신종 슈퍼노트의 경우, 미국은 물론 우리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Intropol)에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가오는 추석과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에는 위폐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국경절을 맞아 중국 방한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편승한 위폐 유입 우려가 있어 경계심을 갖고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센터장은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 대형은행들이 대량의 지폐를 수급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 모두가 위폐감별 기술과 성과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센터장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물론 시중은행에서 노하우를 공유하지는 요청이 있어 은행권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나갈 예정이며, 원스탑뱅크 추세에 맞춰 일선 창구에서도 위폐 감별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삼성화재

DJSI 3대 지수 동시 획득

삼성화재는 2018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월드, 아시아퍼시픽, 코리아3대 지수를 모두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DJSI는 매년 미국 S&P 다우존스사와 스위스 로베코셈사가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이 지수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2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월드 지수’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는 ‘아시아퍼시픽 지수’,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코리아 지수’로 구성돼 있다.

삼성화재는 인재개발, 환경경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5년 연속 세계 최고 등급인 월드 지수를 획득했으며 아시아 퍼시픽 지수는 6년 연속, 코리아 지수는 10년 연속 편입됐다.

올해 국내 보험사 중 월드, 아시아퍼시픽, 코리아3대 지수를 모두 획득한 보험사는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김희주 기자 hj89@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추석특집 소셜라이브 출연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윤석현 원장이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방송에 출연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나우(Now)’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이다. 윤 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추석 금융 꿀팁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시청자 질문에 답변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송은 오는 21일 오후 1시 32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며, 방송 후에는 네이버 및 유튜브에도 게시된다. /안상미 기자

“퇴직연금 중도해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

금감원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 발간

퇴직연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적용금리나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를 따져 비교,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주체는 가입자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는 무려 90%에 달한다.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운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운용상품(금융상품)이 만기가 오면 단

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기보다 상품을 변경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상품 특성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은행 예·적금이나 원리금보장 보험상품, 국채 등 상품마다 금리나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이 다르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조언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합 연금포털과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h1@



지난 18일 이대훈 NH농협은행장(가운데)이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NH통합IT센터를 찾아 주요시스템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NH농협은행장, 연휴 대비 IT센터 방문

직원들 격려·주요시스템 점검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이대훈 은행장이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NH통합IT센터를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장은 추석명절 연휴기간을 앞서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상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시스템을 점검했다.

명절연휴를 전후로 은행업무가 집중되

고, 비대면 거래는 늘어난다. 이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해 주요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거래집중 등의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이 행장은 “추석명절 연휴에도 고객편의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C제일은행, 입출금과 정기예금이 만났다

편리함·수익성 묶은 ‘마이런통장 1호’

SC제일은행은 입출금통장의 편리함과 정기예금의 수익성을 하나로 묶은 상품인 ‘마이런통장 1호’가 최고 연 2.1% (이하 연이율, 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고 19일 밝혔다. 마이런통장 1호는 최대 6개월까지 예치기간에 따라 최저 연 0.1%~최고 연 2.1%의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통장이다. 금액 제한 없이 여유 자금을 예치할 수 있고, 자금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정기예금은 만기 이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만 마이런통장 1호는 각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Step-up) 구조’로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파킹통장’이다.

마이런통장 1호는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연 0.1%, 31~60일 연 1.05%, 61~90일 연 1.3%, 91~120일 연 1.55%, 121~150일 연 1.8%, 151~180일 연 2.1%의 금리를 제공한다. 입금 건별로 전체 예치기간에 대한 최고 금리를 일괄



적용한다. 예금을 찾을 때 먼저 입금된 금액이 먼저 인출되는 선입선출방식이 적용되므로 출금거래 건수가 적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이런통장 1호는 신규일로부터 181일째 되는 날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에 따라 각각 전일까지의 이자가 계산되어 입금 후 마이심플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마이심플통장은 일별 잔액 300만원 초과 금액에 연 1.1%의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통장이다.

마이런통장 1호의 판매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에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유재희 기자

우리은행 ‘우리아이 미래행복 이벤트’

올해 말까지 아동수당 지급고객 대상

우리은행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아이 미래행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부모나 자녀 명의의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고, 자녀명으로 청약종합저축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디트로네 유아용 전동자동차(1대), 킨즈무브2 웨건(20대)을 지급한다.

자동이체 등록 후 12월 말까지 30만원 이상 납입하면 자동 응모된다. 또 매월 100명을 추첨해 총 4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바우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청약종합저축 또는 적금 가입시 사용 가능한 금융바우처(1만원)를 지원한다. 영유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용 가능한 금융바우처(1만원)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안상미 기자